

# 현대사의 한 '인물'에 대한 체계적 이해

## 7년만에 완간된 「咸錫憲全集」 전20권

우리 현대사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이른바 '在野'의 상징적 인물로서, 권력의 불의에 끊임없이 저항해 온 咸錫憲(87)의 전집 20권이 7년만에 완간됐다.

도서출판 한길사는 최근 함석헌전집 제20권인 「씨울의 옛글풀이」를 펴냄으로써, 역사, 종교, 정치, 교육, 사회운동 등에 걸친 함옹의 방대한 저술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집성했다.

### 애초의 10권 계획이 배로 늘어나

200자 원고지 40,000여매에 이르는 이 저작전집을 한길사가 처음 기획한 것은 지난 1981년의 일. 함옹의 '완곡한 사양'을 어렵사리 설득해 1년간의 기초자료 수집을 거친 다음, 이듬해 安炳茂, 金成植(작고), 桂勳梯, 宋建鎬, 金東吉, 金容駿, 高銀, 法頂 등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집 제1권으로 첫선을 보인 「뜻으로 본 韓國歷史」가 나온 것이 1983년 3월이다. 이후 1983년 안에 다시 7권이 나오고, 1984년에 5권, 1985년에 4권, 1986년과 87, 88년에 각 1권씩이 간행됨으로써 7년만에 함석헌전집의 완간을 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0권 가량으로 예상했던 애초의 계획이 배로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 한길사 金彦鎬사장의 설명이다.

“함석헌선생이 저술활동을 시작한 것이 1930년대부터이니가 근 60년간이나 글을 써온 셈이 됩니다. 말하자면, 활동자체가 이미 하나의 역사가 될 정도죠. 따라서, 그 저술의 방대함이란 10권 정도로 정리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金敎臣과 함께 만든 「성서조선」을 비롯해, 등사판으로 제작한 「말씀」지, 그리고 각종 팸플릿 등 여기저기 산재한 자료들을 정리하다보니 이런 규모의 전집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함석헌옹의 저술이 갖는 이같은 방대함은 그의 사상과 관심이 여러 방면에 걸쳐 있음을 의미한다. 편집위원회가 함석헌전집의 간행에 붙인 말에 의하면 '만물상'이다. 또, 안병무 교수는 함옹의 다재다능을 괴테에 비유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전집은 사상가이자 종교인이며, 교육자이자 사회운동가이며, 문필가이자 언론인, 연설가인 함옹의 전모를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는 게 김언호사장의 말이다.

이를 위해 출판사측에서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려뽑아 서로 연관성있는 글들을 한권

씩으로 묶어내는 일에 특히 신경을 썼다. 가운데는 이미 단행본으로 간행됐던 책들도 있지만, 이 전집의 거의 대부분이 '책'의 형태로 엮여져 나오기는 처음인만큼 이같은 작업은 함석헌사상의 가다가다를 분류, 정리하는 일과도 통한다.

### 60여년의 저술활동 체계적으로 정리

이번에 완간된 함석헌의 저작전집 20권은 크게 보아 모두 7가지 내용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첫째가 「뜻으로 본 韓國歷史」(제1권), 「歷史와 民族」(제9권) 같은 한국사 또는 세계사에 대한 성찰을 담은 책으로, 일본 東京高師에서 역사학을 공부한 역사학도로서의 함옹의 독특한 사관이 잘 드러나 있다.

둘째는, 1958년 8월 「사상계」지에 게재된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논설로 현실 비판의 포문을 연 이래 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함옹의 민족현실과 사회문제에 대한 준열한 비판이 표명된 글들을 묶은 책이다. 「人間革命의 哲學」(제2권), 「6천만 民族 앞에 부르짖는 말씀」(제12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제14권), 「民族統一의 길」(제17권) 등이 함옹의 그같은 민족사상, 사회사상을 드러낸다.

세째는, 尹亨重신부와의 논쟁으로 유명한 「한국기독교는 무엇을 하려는가」를 비롯한 기독교관계 논설을 모은 책들로, 「한국기독교는 무엇을 하려는가」(제3권), 「두려워 말고 외치라」(제11권), 「永遠의 뱀길」(제19권) 등이 있다.

네째는, 이른바 「씨울」사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서간문 묶음들. 「씨울의 소리」지를 주재하며 발표한 서간문 형태의 글 등을 「씨알에게 보내는 편지」(제8권), 「달라지는 세계의 한길 위에서」(제10권), 「진실을 찾는 벗들에게」(제18권) 등으로 묶었다.

다섯째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제4권), 「西風의 노래」(제5권), 「水平線 너머」(제6권) 등 함옹 자신의 자서전과 시인 및 에세이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글들을 묶은 책이 있다. 함리적이거나 논리적이라기보다는 호소력을 앞세운 직절적인 함옹 특유의 문장이 가장 여실히 드러나 있고, 특히 「水平線 너머」의 경우는 아예 한권의 시집으로 꾸며졌다.

여섯째는 老莊철학과 印度사상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책으로, 「바가바드기타」(제13



권) 및 「씨울의 옛글풀이」(제20권)가 이에 해당한다. 이 책들은 특히 동양고전의 단순한 주석에서 벗어나, 동서양 명현석학들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어 함옹의 사상이 갖는 해박한 이론체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함옹이 사숙한 간디의 삶과 사상을 해설하고 그 자서전을 번역한 「간디의 참모습 / 간디自敍傳」(제7권)을 비롯한 일련의 번역서를 들 수 있다. 칼릴 지브란의 저서를 번역한 「사람의 아들 예수 / 예언자」(제16권) 및 무교회주의자에서 퀘이커교도로의 변모를 보이는 「말씀 / 퀘이커300년사」(제15권)가 그것들이다.

### 전집 완간 계기로 학술대회도 개최 예정

함석헌옹이나 그의 저술에 관한 평가는 금·부정에 걸쳐 대단히 여러 갈래다. 우리 현대사를 통틀어 '선생'이라 불리는 몇 안되는 인물들 중의 하나로 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아가 그를 지칭함에 있어 '위대한' 혹은 '독창적'이란 에피세트를 서슴없이 동원하는 견해도 있다. 반면, 함옹의 글이 갖는 강력한 '선동성'을 마뜩찮게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그 모순성을 들어 사정없이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금·부정간의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함옹이 우리 현대사에서 갖는 무게에 대해선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5·16 직후 군사정권에 대한 정면비판을 제기한 「5·16을 어떻게 볼 것인가」(제17권 수록) 이래 30여년 동안, 그는 그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정치권력의 가장 강력한 안티테제로 존재해 왔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전모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함석헌전집의 완간은 발행인 김언호사장의 장담대로 함석헌옹에 대

자료수집 기간을 포함하여

7년만에 완간된 이 전집은,

1930년대 이후 60여년 동안

함석헌옹이 써 온 방대한 양의

저술들을 최초로 분류,

집성했다는 데 그 큰 의의가 있다.

이 전집은 그간 정치적 레지스탕스로서의

일면만 알려져 온 함옹의

인물과 사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종합적 이해의 계기가 될 만하다. 그동안 무슨무슨 사건이나 성명에 연루돼 막연히 '소문'으로만 알려져 왔던 함옹의 전모와 실체를, 이 전집은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함석헌전집은 그간 정치적 레지스탕스의 일면으로만 부각돼 온 함옹에 대한 각종 소문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객관적 자료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의 해석과 판단의 문제는 이제 독자의 몫으로 넘겨짐은 물론이다.

한길사에서는 이같은 해석과 판단의 일환으로, 앞으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가칭 「함석헌사상연구」라는 논문집도 펴낼 예정이다. 사상과 종교, 정치, 교육, 역사, 사회운동, 언론의 전부분에 걸쳐 전문가들의 참여로 함석헌사상의 객관적 자리매김을 시도해 보겠다는 것이 한길사의 의욕이다.

해방 이후 이 땅의 가파른 정치사에서 어쨌든 한 '인물'임에 분명한 함석헌옹에 대해 이 전집은, 그가 끼친 영향력의 실체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나름대로의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철주 기자